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상하이 화재공중책임보험시장 급성장

- 최근 상하이보험감독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상하이의 2010년 상반기 까지 화재공중책임보험(우리의 화재보험과 유사) 가입업체 수가 2년 전에 비해 5배 증가하는 등 화재공중책임보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화재공중책임보험의 시범운영 회사로 지정된 인민보험공사, 타이핑양보험, 평안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확보한 가입 업체 수는 2010년 6월 기준으로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급증한 약 8,00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.
 - 화재공중책임보험 가입 증가에 대해 감독당국은 공공장소에서 화재,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상하이 공공장소의 점포 운영자들 사이에 확산된 것이 주요인으로 보고 있음.
 - 한편, 화재공중책임보험의 업체당 평균보험료는 2009년 말 기준 약 2.300위안,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 위안, 총 누적보험료는 약 200만~6,000만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.

- 보험회사들의 권역당 영업독점 사업권 보장으로 화재공중책임보험 가입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반면, 지역 및 업체간 가입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남.
 - 상하이보험감독국은 화재공중책임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상하이를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자율경쟁 지역으로 분류한 푸동(浦东) 및 쉬하이(徐汇)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을 8개 손해보험회사들에게 각각 1개 권역을 배정해 독점적으로 계약유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치를 시행함.
 - 그 결과 화재공중책임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, 보험회사간의 역량 차이로 지역별 가입률 편차가 심하고 보험회사들의 영업대상이 주로 보험료 수입이 많은 대형 점포들에게 편중되는 등 여전히 상당수의 점포들이 미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(상하이보험감독국 홈페이지, 해방망, 7/23)